東洋學 第49輯(2011年 2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소장 『삼국지연의』의 연구

유 춘 동*

▌국문초록▐

이 글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에 소장된 한글 번역본 『삼국지연의』(이하 시민도서관본)을 대상으로, 번역본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시민도서관본은 전체 30권 30책으로 되어 있다. 이 본은 1903년 전후에 필사되어 읽히다가 〈권2〉가 결본이 되자, 1909년에 〈권2〉만 다시 필사한 것이다. 이 본을 필사한 사람과 필사의 목적은 필사기(筆寫記)의 "일선니 공부칙니요"를 통해서, 소설 『삼국지연의』를 통하여 중국의 역사를 알고, 한글을 배우기 위하여 소설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권2〉를 제외한 29책은 모종강본(毛宗崗本) 『삼국지연의』를 충실히 번역한 것으로, 매 권 당 4회의 내용을 필사해 놓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20〉과 〈권23〉은 5회와 3회 분량을 필사했다. 개장시(開場詩), 주(註), 평어(評語), '차청하회(且聽下回)'와 같은 상투어는 대부분 생략을 하였다. 그러나 내용은 모종강본을 충실하게 축약(縮約)하여 번역했다.

29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종강본에 있는 삽입시를 대부분 번역했다는 것이다. 삽입시는 한글로 해석만을 해두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두 개 이상의 시가 등장할 경우에는 대개 처음의 시만 번역을 했다.

시는 유비를 비판하거나 그런 분위기의 것, 조조를 찬양하는 것, 필사자가 판단해서 악역(惡役)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의 시를 모두 생략했다. 반면에 관우, 제갈량, 조자룡, 장비가 등장하는 곳이나 충신(忠臣)들이 등장하는 부분의 시는 모두 번역해 두었다.

반면 〈권2〉는 원본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장회명의 경우 필사자가 임의적으로 장회명을 적었으며, 내용 또한 장회의 구분 없이 필사했다. 그리고 29책과 같이 중간에 등장하는 삽입시는 모두 생략했다.

이 본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읽혔던 본이며, 활판본 『삼국지연의』나 신소설이 등장하기 전인 20세기 초의 번역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한글번역본 『삼국지연의』, 모종강본의 번역본, 번역의 양상, 축약번역본

* 연세대학교 강사 / sechaek@hanmail.net

목 차

Ⅰ. 서 론
Ⅱ. 서지적 검토
Ⅲ. 번역본의 성격과 특징
Ⅳ. 마무리와 남는 문제
[부록] : 부산 시민도서관본의 서지사항

Ⅰ. 서 론

『삼국지연의』는 국내에 전래된 여타의 중국소설과는 다르게 조선에서 독자적인 활자본(活字本)과 번각본(翻刻本)이 수차례 간행되었고,[1]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설이다.

그리고 조선의 『삼국지연의』의 독자들은 단순히 이 소설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이 지닌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소설장르가 지닌 효용성(效用性)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했다.[2] 또한 보다 적극적인 독자들은 원작(原作)에만 만족하지 않고 원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본이나 재창작에 가까운 작품들도 만들어냈으며, 18~19세기에 들어와서는 원작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판소리로,[3] 이윤을 추구하려는 방각본·세책본 업자에 의해서는 상업출판물로도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고소설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대단히 독특한 소설이다.

따라서 『삼국지연의』 하나 만을 놓고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소설 독자들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고 어떤 인식을 했으며, 원작(原作)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에서 개작을 시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상품화를 시도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소설 『삼국지연의』는 우리 고소설사(古小說史)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삼국지연의』에 대한 연구는 중문학과 국문학이라는 전공 영역의 구분이나 판소리에 편향되었기에, 전자는 주로 작품론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후자는 대부분 군담소설과의 관련성, 판소리 『적벽가』·『화용도』와의 비교에만 치중하여 왔다.[4]

---

1) 『삼국지연의』는 조선에 전래된 이후에, 중국 원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본(飜刻本)과 중국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활자본(活字本)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박재연의 「조선 각본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27집, 중국어문학회, 2008.; 「새로 발굴된 朝鮮 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4집, 중국어문연구회, 2010에서 밝힌 바 있다.

2) 『삼국지연의』와 관련된 자료는 무악고소설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태학사, 2001.;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Ⅱ』, 이회, 2005, 참조. 그밖에 이 소설로 인하여 생긴 논란은 오춘택, 『한국 고소설 비평사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1.;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에서 다루었다.

3) 판소리 「적벽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의는 김상훈, 『적벽가의 이본과 형성 연구』, 인하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2.; 김기형, 『적벽가의 역사적 전개와 작품 세계』,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3.;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1996.; 이기형, 『필사본 화용도 연구』, 민속원, 2003.; 서종문,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10 등이다.

4) 최근까지 『삼국지연의』의 연구 성과는 정원기, 『최근 삼국지연의의 연구 동향』, 중문, 2000.;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아세아문화사, 2008, 참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삼국지연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한글번역본에 대한 검토는 몇몇 이본에 한하여 이루어졌을 뿐[5] 대다수의 이본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물론 새로운 번역본의 발굴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6]

부산 시민도서관[7] 소장 한글 번역본『삼국지연의』는 이 글에서 처음 다루는 이본이다. 이 본을 소장하고 있는 부산 시민도서관은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의 효시가 되는 곳으로, 1876년 일본과의 수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산에 많은 일본인이 입국하여 거주하게 되자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8] 도서관의 고서들은 대부분 1910년 무렵에 수집된 것들로 자료적인 가치가 높다.

『삼국지연의』 역시 이 무렵에 필사되고 수집된 것으로, 이 본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읽혔다는 점과, 활판본『삼국지연의』나 신소설이 등장하기 전인 20세기 초의 번역본이란 점에서, 다른 어떠한 이본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번역본이 지닌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Ⅱ. 서지적 검토

이 책의 청구기호는 古823.5이며, 크기는 31×20.3cm, 전체 30권 30책이다. 책의 표제(表題)는 한글로 "삼국지 졔일, 졔이…"식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일부 책에는 표지에 한문으로 회명(回名)을 적어놓은 것도 있다.[9]

외형(外形)으로만 보면 이 책은 완질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두 종의 번역본이 합쳐진 것이다. 원래 있었던 30책 중에서 〈권2〉가 빠져서 이 부분만 다시 필사되었다. 이는 아래의 필사기를 통해서 확인된다.

> 동써러져셔 우흔 거실 하회을 보시되, 혹 외ᄌᆞ와 부죡ᄒᆞ온 일을 등셔ᄒᆞ신 이가 져깟금 다르와 보시ᄂᆞᆫ 칙으로 눈 집픈 마듸가 잇ᄉᆞ오나 혹 곤치긔도 ᄒᆞ시고 눌너 보시기을 다갓치 짐

5) 오수미,『「삼국지연의」의 연변 및 비교문학적 연구』, 서울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1974.; 박재연,『삼국지통속연의』, 이회문화사, 2001.; 정민경 외,『청 모종강본 삼국지』, 학고방, 2007,; 이은봉,『「삼국지연의」의 수용 양상 연구』, 인천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7.; 이재홍,『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8.

6) 현재 확인된『삼국지연의』의 이본은 100여 종이다. 그러나 존재가 파악되지 않은 개인소장자들의 이본까지 더해진다면 실제로는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조희웅,『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고전소설 연구보정상』, 박이정, 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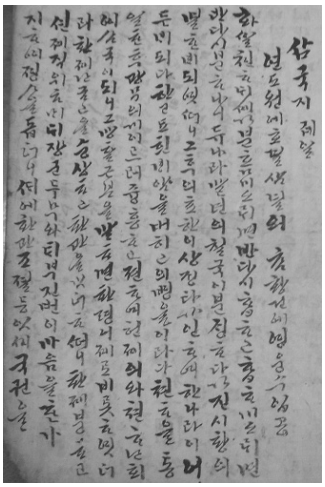
7) 정확한 명칭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이다. 이하 '부산 시민도서관'으로 약칭하고, 이 도서관에 소장된 본을 '부산 시민도서관본'으로 명명한다.

8) 도서관의 성립 과정과 성격은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부산의 도서관사』, 육일문화사, 2003.; 표용수,『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20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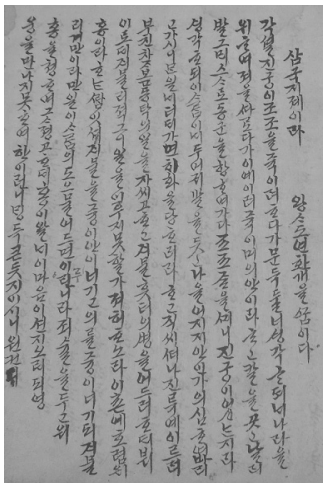
9) 자세한 서지사항은 〈부록〉을 참조.

즉 ᄒᆞ시옵쇼셔. 긔유 납월 슌육일 필등

이로 인하여 서지사항에도 차이가 있다. 〈권2〉를 제외한 나머지 권에서는 〈사진 1〉과 같이 표제가 동일한 형식이며, 시작 전에 “연도원에 호걸 삼결의, 츰황건에 영웅수입공”[10]식으로, 원래 장회명의 한문 대신에 한글로 음과 토를 달았다.



〈사진 1〉 〈권1〉의 1장 앞면



〈사진 2〉 〈권2〉의 1장 앞면

29책의 각 권은 매면 11행, 행당 24~26자 내외, 전체 40장 내외로, 한 권 당 모종강(毛宗崗)본 『삼국지연의』를 4회씩 필사해 놓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20〉과 〈권23〉은 5회와 3회를 필사했다.

필사자는 필사할 때마다 일관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ᄉᆞ름’이란 단어를 특이하게 기재하거나 ‘다만’과 같이 ‘ㄴ’받침을 쓸 경우에는 ‘ㄴ’을 ‘ㅅ’으로 고쳐 ‘다맛’으로, ‘뇌물, 칼, 슐’과 같이 ‘ㄹ’받침으로 끝날 경우에는 ‘ㄹ’을 빼고 ‘뇌무, 카, 슈’로 표기했다. 그리고 ‘죽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쥭이다’로 표기하였다.

〈권2〉는 보수(補修)해 넣은 것이기에, 서지사항이 다르다. 매면 12행, 행당 27자 내외로, 29책과 비교해 볼 때 한 면당 글자 수가 다른 권들과는 형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내제도 “삼국지 제이라”로 다르다.(〈사진 2〉 참조)

〈권2〉 역시 모종강본의 4회 분량을 필사하였다. 그러나 장회명은 “왕ᄉᆞ도연환개을 쑴이다”, “원쇠 공숀찬과 반하의 ᄊᆞ우다”과 같이 줄거리를 요약하여 자의적으로 장회명을 지었고, 장회의 구분

10) 원 장회명은 “宴桃園豪杰三結義 斬黃巾英雄首立功”이다.

없이 필사하였다.

이 책의 필사 시기와 필사자는 〈권2〉의 "긔유 납월 슌육일 필등"과 〈권8〉의 "일선니 공부칙니요 · 일일 · 癸卯 三月 二十六日, 癸卯 三月 二十六日 李馹璇 필, 全警務官宅 칙니요"이란 필사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부산 시민도서관의 고서(古書)들은 대부분 1909년에서 1911년 사이에 수집된 것들이다.[11] 따라서 이 도서관의 고서들은 적어도 1911년 이전의 자료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필사기에 적힌 "긔유"와 "癸卯"는 필사의 하한 시기를 1909년과 1903년으로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언제까지 소급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본에서 사용된 어휘나 표현 등은 비슷한 시기의 이본들과 비교해 볼 때, 주로 구어적(口語的)인 성격이 강하고 일부 대목에서는 근대적 표현이 보인다.

예를 들어 〈권1〉의 1회 내용에는 조조의 영민함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다.[12] 조조의 숙부는 조조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에게 고하여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조조는 숙부를 골려주기 위하여 거짓으로 숙부 앞에서 중풍에 걸린 모습을 한다. 이를 본 숙부는 즉시 그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놀란 조조의 아버지는 조조를 불러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자 조조는 숙부가 늘 자신을 미워하여 아버지께 거짓으로 고한다고 말한다. 이후부터 조조의 아버지는 더 이상 숙부의 말을 듣지 않고 조조를 신뢰한다는 내용이다.

현전하는 대다수의 이본들은 이 부분이 "실애하다"나 "뮈어하다"로 되어있다.[13] 그러나 이 책에서는 "사랑치 아니 ᄒᆞ시난고로"로 번역했다. 사랑하다는 말이 현재와 같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내용적인 면을 원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이 본은 축약(縮約)이 강하다는 점, 중간 중간 본문에 빠진 내용을 첨가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필사자가 원본을 직접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선행했던 필사본을 저본으로 전사(轉寫)한 것이기에 시기를 소급해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14]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사진 3〉의 "全警務官宅칙니요"라는 기록이다. 경무관은 1894년(고종 31년)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종래에 있던 포도청(捕盜廳)을 폐지하면서 새로 설치한 관직이다.[15] 따

11) 이 도서관의 목록(目錄)을 보면 이 책들의 수집시기를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편,『고서목록』,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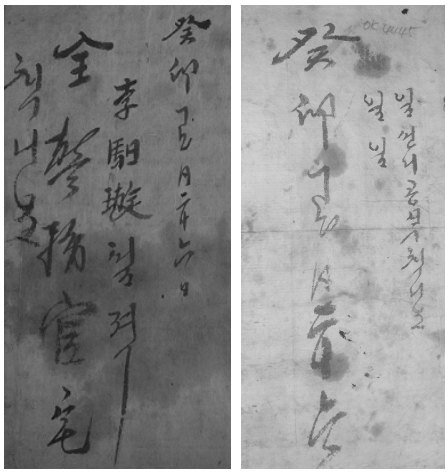
12) 이 대목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본다. 강태권,「談論 三國演義 중의 曹操」,『인문과학』 7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조연준,『「삼국지」와 「삼국연의」를 통해 본 옹유폄조』, 단국대 중문과 석사학위 논문, 2009, 참조.

13) 모종강본, 국립중앙도서관본, 활판본에서 이 대목을 비교하면, 〈1〉 嵩曰 : "叔言汝中風, 今己愈乎？" 操曰 : "兒自來無此病, 因失愛於叔父, 故見罔耳."(모종강본), 〈2〉 슝이 물어 왈, "네 아ᄌᆞ비 말ᄒᆞ되 네가 바름마ᄌᆞ싸 ᄒᆞ더니 이제 임의 낫ᄂᆞ냐?" ᄒᆞᆫᄃᆡ 죠 ᄃᆡ답 왈, "소ᄌᆡ 본ᄃᆡ 이 병이 업숩고 이ᄂᆞᆫ 반다시 슉부로 더러 실ᄋᆡᄒᆞᆫ 연괴라" (국도본), 〈3〉 슉뷔 말ᄒᆞ기를, "네가 즁풍ᄒᆞ다 ᄒᆞ더니 그 ᄉᆞ이 나흔다?" 죠 ᄃᆡ왈, "히ᄋᆡ 번ᄃᆡ 그런 병이 업거늘 숙뷔 뮈이 역여 ᄒᆞ신 말ᄉᆞᆷ이로소이다."(고유상 간행 활판본), 〈4〉 슝이 문왈, "네 슉부 말이 즁풍ᄒᆞ다 ᄒᆞ더니 지금 나흔야?" 죠 왈, "소ᄌᆡ 볼ᄂᆡ 이 병이 업시되 슉부 본ᄃᆡ 사랑치 아니 ᄒᆞ시난고로 이런 말ᄉᆞᆷᄒᆞ시나니다." (부산시민도서관본)과 같이 차이가 있다.

14) 필사본을 읽은 누군가가 다시 써 넣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필체 등을 볼 때 동일한 사람의 글씨이기 때문에 후에 오류를 발견하고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라서 이 본은 1894년 이후의 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03년 전후에 필사되어 전해지다가 〈권2〉이 결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1909년에 다시 필사한, 20세기 초의 필사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을 필사한 목적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사진3〉의 "일선니 공부칙니요"라는 필사기를 보았을 때, 소설 『삼국지연의』를 통하여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소설 필사를 통하여 한글을 배울 목적으로 소설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16]



〈사진3〉 〈권8〉의 필사기

Ⅲ. 번역본의 성격과 특징

1. 번역본의 저본

현존하는 『삼국지연의』는 크게 가정본(嘉靖本) 계통, 지전본(志傳本) 계통, 모종강본(毛宗崗本) 계통으로 나뉜다.[17] 세 계통은 판식(版式), 자구(字句)와 내용, 주(註), 삽입시가의 차이, 작품에 관우(關羽)의 셋째 아들인 관색(關索)이 등장하는가의 여부로 나뉜다.

모종강본은 지전본 계통에서 파생된 이탁오본(李卓吾本)을 저본으로, 240회의 장회를 120회로 줄이고, 권두사(卷頭辭)에 양신(楊愼)의 「임강선(臨江仙)」를 삽입시켰으며, 시작을 "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로 바꾸었다. 그리고 협비(夾批)와 총평을 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문체를 다듬고, 줄거리마다 적절한 첨삭을 가하며, 논찬(論贊)이나 비문(碑文) 등을 삭제하며, 시가를 유명 시인의 시가로 대체함으로써 문장의 합리성, 인물 성격의 통일성, 등장인물의 생동감, 스토리의 흥미도를 대폭 증가했고[18] 내용면에서는 촉한(蜀漢) 정통론과 '존유폄조(尊劉貶曹)'를 강조했다.

---

15) 서울시사편찬위원회편, 『서울육백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0.; 변주승 역, 『대한계년사』, 소명, 2004. 참조.

16) 고소설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한글을 배운 정황은 정병설,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 :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5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완판본 『언삼국지』는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한글의 자모(字母)를 실어놓았다. 이를 놓고만 보더라도 당대 사람들에게 고소설은 역사나 문화, 한글 학습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7) 세 계열은 魏安, 『三國演義版本考』, 上海古籍出版社, 1996.; 上田望, 「三國演義版本試論」, 『三國演義叢考』, 北京大學出版社, 1995.; 中川諭, 『三國志演義版本的研究』, 汲古書院, 1998을 참고로 한 것이다. 최근 『삼국지연의』의 판본 연구는 지전본 계통이 원본에 더 가깝다는 학설이 제기되었고 주왈교본(周曰校本)이나 상해(上海) 잔본(殘本), 조선에서 간행된 활자본(活字本)의 발굴로 인하여 판본의 계통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주관, 『2010년 국제 학술회의 近代的 동아시아 小說의 交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0, 8월.; 민경욱, 「異體字와 引書異文으로 본 三國志演義 초기 텍스트: 嘉靖壬午本과 葉逢春本의 對校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참조.

모종강본은 강희(康熙) 연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에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간행되었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명칭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사대기서제일종(四大奇書第一種)→제일재자서(第一才子書)→관화당제일재자서(貫華堂第一才子書)→수상금비제일재자서(繡像金批第一才子書)→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삼국연의(三國演義)이다.[19] 그러나 각 본은 형태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20]

부산 시민도서관본은 모종강본을 저본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 근거는 원본과 장회명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대부분의 장회명은 모종강본과 일치한다. 다만 〈권21〉의 84회 장회명은 "촉쥬유모능셜복ᄒᆞ고 오병이 효용졍죠금ᄒᆞ다"로, 원 장회명인 "陸遜營燒七百里, 孔明巧布八陣圖"와 다르다.[21] 그러나 내용과 삽입시는 모종강본과 동일하다. 이외에 29책의 '작품의 시작, 모종강본의 삽입시, 관색의 등장, 마무리' 부분을 모종강본 비교해 보아도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화셜. 천ᄒᆞ ᄃᆡ셰가 분홈미 오ᄅᆡ면 반다시 홉ᄒᆞ고 홉ᄒᆞ미 오ᄅᆡ면 반다시 분ᄒᆞ나니…
> 〈권1〉
> 話說. 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22]

> 관공의 졔 ᄉᆞᆷ자 관ᄉᆡᆨ이 왓다ᄒᆞ거늘 공명이 불너 본이 ᄉᆡᆨ 왈, "형쥬 일흠으로붓터 난을 도망ᄒᆞ야 병든 몸을 죠셥ᄒᆞ며 셔천에 와 션졔을 보고 원슈을 갑고져 ᄒᆞ여…〈권22〉
> 關公第三子關索, 入軍來見孔明曰, "自荊州失陷, 逃難在鮑家莊養病. 每要赴川見先帝報讎, 瘡痕未合, 不能起行…[23]

> 일노붓터 ᄉᆞᆷ국이 진에 도라오니 일통이 된지라. 이 〃른바 천ᄒᆞ ᄃᆡ셰가 홉ᄒᆞ미 오ᄅᆡ면 반다시 난회고 난회미 오ᄅᆡ면 반다시 합ᄒᆞ미라. 후에 와 후한황졔 뉴션이 진나라 ᄐᆡ강 칠년의 망ᄒᆞ고 위쥬난 ᄐᆡ상 원년의 망ᄒᆞ고 오쥬ᄂᆞᆫ ᄐᆡ강 ᄉᆞ년의 망ᄒᆞ니 다 션죵ᄒᆞ미어라. 〈권30〉
> 自此三國歸於晉帝司馬炎, 爲一統之基矣. 此所謂天下大勢, 合久必分, 分久必合者也. 後來後漢皇帝劉禪亡於晉太始七年, 魏主曹奐亡於太安元年, 吳主孫皓亡於太康四年, 皆善終.[24]

위의 예문은 각각의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산 시민도서관본은 모종강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

18) 정원기,『정역삼국지』, 현암사, 2008, 참조.
19) 정원기, 앞의 책, 참조.
20) 김문경,『삼국지의 영광』, 사계절, 2002.; 上田望,「毛綸 · 毛宗崗批評『四大奇書三國志演義』版本目錄(稿)」,『中國古典小說硏究』, 第四號, 1998.
21) 현재 알려진 모종강본에는 이 장회가 없다.
22) 吳小林 校註,『三國演義校註』上卷, 里仁書局, 1994. 1쪽.
23)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下卷, 980쪽.
24)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下卷, 1351쪽.

2. 번역본의 번역 양상 및 특징

부산 시민도서관본은 두 종의 번역본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두 본의 번역양상과 특징이 다르다. 먼저 29책은 모종강본의 내용을 충실하게 축약하여 번역했다. 원본의 일부 어려운 내용은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편지 · 표(表) · 상소문(上訴文) 등은 모두 축약하였다. 하지만 대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사전개에 방해가 되는 개장시(開場詩), 주(註), 평어(評語), '차청하회(且聽下回)'와 같은 상투어, 매 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시는 모두 생략하였다.

> 듀나라 말년의 칠국이 분징ᄒᆞ다가 진시황의 멸ᄒᆞᆫ ᄇᆡ 되엿써니, 그 후의 쵸한이 상징타가 인ᄒᆞ여 한나라이 어든 ᄇᆡ 되다. 한 고됴 흰 ᄇᆡ얌을 버히고 의병을 이라다 쳔ᄒᆞ을 통일ᄒᆞᆫ 후 광무의게 이르러 즁흥ᄒᆞ고 젼ᄒᆞ여 헌졔의 와 쳔ᄒᆞ ᄂᆞᆫ희여 숨국이 되니, 그 망할 근본을 말ᄒᆞ면 환 · 령 이졔로 비롯ᄒᆞ엿더라… 〈권1〉

> 周末七國分爭, 并入於秦. 及秦滅之後, 楚 · 漢分爭, 又并入於漢. 漢朝自高祖斬白蛇而起義, 一統天下. 後來光武中興, 傳至獻帝, 遂分為三國. 推其致亂之由, 殆始於桓 · 靈二帝.…[25]

예문은 1회의 내용으로, 동한(東漢) 이전의 역사와 어지러운 형국을 기술하고 있다. 원문의 "并入於秦. 及秦滅之後…"은 '진나라에 병합되었다. 진이 멸한 후에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에서는 "진시황의 멸ᄒᆞᆫ ᄇᆡ 되엿써니"로 번역했다. '진'을 '진시황'이라고 쓴 이유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탁 왈, "역적놈이 ᄂᆡ 이히을 ᄉᆞ통ᄒᆞ니 밍셰코 반다시 쥑이리라." 위 왈, "승상이 그르도다. 예날 초쟝왕이 갓ᄂᆞᆫ 썩난 모흠에 이희 히롱ᄒᆞ난 허무를 ᄎᆞᆺ지 아니ᄒᆞ여더니, 후에 진병의 곤ᄒᆞᆫ ᄇᆡ 되어 그 신ᄒᆞ 힘을 다ᄒᆞ여 셔로 구ᄒᆞ믈 어더스니, 〃졔 쵸션은 불과 ᄒᆞᆫ 여ᄌᆞ요 여포이에 ᄐᆡᄉᆞ의 심복 밍쟝이라. ᄐᆡᄉᆞ 만일 이 긔회을 타 초션으로뼈 여포을 쥬면 뫼 반다시 기로뼈 ᄐᆡᄉᆞ을 갑풀 것스[이]니 청컨ᄃᆡ 스ᄉᆞ로 셰 번 ᄉᆡᆼ각ᄒᆞ소셔."… 〈권3〉

> 卓曰, "叵耐逆賊! 戲吾愛姬, 誓必殺之!" 儒曰, "恩相差矣. 昔楚莊王 絕纓之會, 不究戲愛姬之蔣雄, 後爲秦兵所困, 得其死力相救. 今貂蟬不過一女子, 而呂布乃太師心腹猛將也. 太師若就此機會, 以蟬賜布, 布感大恩, 必以死報太師. 太師請自三思."…[26]

예문은 9회의 내용으로, 동탁이 초선과 밀정(密情)을 나누던 여포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가다가 이유(李儒)와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다. 이때 이유는 동탁에게 '초장왕(楚莊王)과 장웅(莊雄)의 절영지

25)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上卷, 1쪽.
26)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上卷, 107쪽.

회(絶纓之會)'의 일화를 들어 여포를 구하려 한다. 번역을 보면 "초쟝왕이 갓ᄭᅳᆫ 썩난 모흠에 ᄋᆡ희히롱ᄒᆞ난 허무"라고 했는데, 원문과 대조해 보면 장웅이 생략되었다. 빠른 서사전개를 위하여 불필요한 인물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27] 이러한 예문을 볼 때 29책은 모종강본의 충실한 번역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9책은 인명(人名), 자(字), 지명(地名), 중요한 어휘 등에서 오기(誤記)나 오역(誤譯)이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영제(靈帝)를 션제로, 유주태수 유언을 유풍으로, 유비의 숙부인 유원기를 유언으로, 관우의 자를 '수장'으로 필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역(誤譯)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각이 〃에 삼십뉵 방을 셰우니, 큰 방은 만어 인이 용납ᄒᆞ고 젹은 방은 뉵칠쳔 인이 안질 만ᄒᆞᆫ지라. 각〃 방쟝을 ᄭᅮ되 쟝군이라 층ᄒᆞ고…〈권1〉
>
> 角乃立三十六方, 大方萬餘人, 小方六七千, 各立渠帥, 稱爲將軍[28]

예문에서 방(方)은 실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황건적의 수령(首領)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역본에서는 "안질 만ᄒᆞᆫ지라"와 같이 거주 공간인 방으로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였다.

그리고 29책의 번역 양상 중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유비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조조를 찬양하거나 호의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 즁산졍왕 뉴승의 후요, 한 효명황제의 각ᄒᆞ 현숀이라. 셩은 뉴, 명은 비요, ᄌᆞ난 현덕이라. 옛 뉴승의 아달 졍을 광무 ᄯᅴ에 탁군졍후을 봉ᄒᆞ얏더니 베사를 일코 혈〃ᄒᆞᆫ 믹이 현덕의게 이르러… 〈권1〉
>
> 中山靖王劉勝之後, 漢景帝閣下玄孫. 姓劉, 名備, 字玄德. 昔劉勝之子劉貞, 漢武時封涿鹿亭侯, 後坐酎金失侯, 因此遺這一支在涿縣…[29]

예문은 1회의 내용으로, 유비가 탁현에 살게 된 내력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모종강본 원문에서 유비의 조상인 유정은 황제의 제사 비용을 바치지 못한 이유로 관직을 삭탈 당했고, 이후 탁현에 정착하게 된다.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유정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벼슬을 잃었다는 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 죄 여포을 목잘나 쥭인 후 머리을 효시ᄒᆞ더라. 각셜… 〈권5〉

---

27) 이 본 전체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28)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上卷, 2쪽.
29)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上卷, 3쪽.

操令將呂布縊死, 然後梟首. 後人有詩歎曰:
洪水滔滔淹下邳, 當年呂布受擒時. 空如赤兔馬千里, 漫有方天戟一枝.
縛虎望寬今太懦, 養鷹休飽昔無疑. 戀妻不納陳宮諫, 枉罵無恩大耳兒.
又有詩論玄德曰:
傷人餓虎縛休寬, 董卓丁原血未乾. 玄德既知能啖父, 爭如留取害曹瞞?
卻說…[30]

예문은 19회의 내용으로, 여포가 죽을 때에 유비의 행위가 옳은지를 후대인이 평한 시가 있다. 이 시는 조조와 동조하여 여포를 죽이는 유비를 다소 비판하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번역본에서는 역시 이 시를 생략했다. 이외에도 『삼국지연의』에서 유비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시는 모두 생략했다. 예를 들어 〈21회〉에 '曹操煮酒論英雄 關公賺城斬車冑'에서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유비가 일부러 어리석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두고 이를 평한 시가 있는데, 이 시 역시 생략했다. 그러나 유비의 의롭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담은 시는 모두 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29책은 조조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조조가 의로운 행동을 보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시 모두를 생략했다.

나히 이십에 효렴의 쎄여 낙양 북도위되다. 도임 후 볍영이 엄슉ᄒᆞ니 감히 범ᄒᆞᆯ ᄌᆡ 업ᄂᆞᆫ지라. 위명이 ᄃᆡ진ᄒᆞ여 후에 돈구령의 올마더니… 〈권1〉

年二十, 舉孝廉, 爲郎, 除洛陽北都尉. 初到任, 即設五色棒十餘條於縣之四門, 有犯禁者, 不避豪貴, 皆責之. 中常侍蹇碩之叔, 提刀夜行, 操巡夜拏住, 就棒責之. 由是, 內外莫敢犯者, 威名頗震, 後爲為頓丘令…[31]

예문은 1회의 내용으로, 젊은 시절 조조의 의로운 모습을 잘 드러낸다. 어린 나이에 관직에 오른 조조는 법령을 어긴 자는 부귀를 막론하고 모두 엄벌에 처했다. 이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중상시 건석(蹇碩)의 숙부가 죄를 범했다. 그러자 조조는 이를 무시하고 그를 처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신망을 받는다. 번역본에서는 이처럼 조조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은 피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처리했다.

또한 조조를 찬양하는 내용의 삽입시를 모두 생략했다. 예를 들어 〈17회〉에는 조조가 군령을 어기자 스스로 자신의 머리털을 베어 죄를 속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에 대한 후대인의 찬시(讚詩)가 나온다. 번역본에서는 이 장면 역시 생략하였다. 이러한 본문의 생략은 필사자가 조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나온 결과로 보인다.

30)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上卷, 239쪽.
31)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上卷, 7쪽.

29책은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은 본문에 등장하는 삽입시를 대부분 해석해 놓았다는 점이다. 삽입시는 〈권4〉 이후로 거의 다 해석해 놓았는데, 한시에 대한 번역만을 한글로 기재해 놓은 형식이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두 개 이상의 삽입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개 처음의 시만 옮긴 양상을 보인다.

후 언미지 글 잇셔 공명을 찬ᄒᆞ여 왈,
난을 ᄭᅦᄆᆡ 위란ᄒᆞᆫ 임군을 붓드니 은근히 탁고ᄒᆞ믈 바다써라.
영ᄌᆡ난 관악의 지ᄂᆡ고 묘칙은 숀오을 이긔써라.
늠〃ᄒᆞᆫ 츌샤푀요 당〃ᄒᆞᆫ 팔진도네라.
공과 갓치 셩덕 ᄯᅮ요, 응당 고금의 업시믈 탄식ᄒᆞᆯ 네라.〈권26〉

後元微之有詩讚孔明曰：
撥亂扶危主，慇懃受託孤.
英才過管樂，妙策勝孫吳.
凜凜出師表，堂堂八陣圖.
如公存盛德，應歎古今無![32]

위의 시가 대표적인 예로 104회에 나오는 시이다. 이 부분은 제갈량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충절을 기리는 두보(杜甫), 백낙천(白樂天), 원진(元稹)의 찬시(讚詩)가 있다. 원진의 시는 앞에 있는 두 시보다 제갈량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찬양한 시이다.[33] 이러한 이유로 필사자는 세 편의 찬시 중에서 원진의 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삽입시의 해석 또한, 나름대로 일관되게 생략한 원칙이 있다. 악역(惡逆)이라고 생각되는 인물, 예를 들어 동탁이나 여포와 관련된 시는 모두 생략했다. 반면 관우, 제갈량, 조자룡, 장비이나『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삽입시는 모두 번역해 놓았다.

다음 〈권2〉의 번역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권2〉도 원본에 등장하는 개장시(開場詩), 장회명(章回名), 주(註), 평어(評語), '차청하회(且聽下回)' 등의 상투어를 모두 생략했다. 그러나 29책과 같이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시는 모두 해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본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축약했다.

슈월리 못ᄒᆞ야 군ᄉᆡ ᄉᆞ방으로 구름갓치 모흐고 장슈 악진 이젼 하후돈 하후연과 죠의 족계 죠인 죠홍 죠방 등이 각〃 군ᄉᆞ을 슈쳔식 거나리고와 뵈인ᄃᆡ… 〈권2〉

32) 吳小林 校註, 앞의 책 下卷, 1180쪽.
33) 정원기 역,『삼국지 시가 감상』, 현암사, 2008, 406쪽 참조.

不數日間, 應募之士, 如雨駢集. 一日, 有一個陽平衛國人, 姓樂, 名進, 字文謙, 來投曹操。又有一個山陽鉅鹿人, 姓李名典, 字曼成, 也來投曹操. 操皆留為帳前吏. 又有沛國譙人, 夏侯惇, 字元讓, 乃夏侯嬰之後. 自小習鎗棒, 年十四從師學武, 有人辱罵其師, 惇殺之, 逃於外方. 聞知曹操起兵, 與其族弟夏侯淵, 兩個各引壯士千人來會. 此二人本操之弟兄. 操父曹嵩原是夏侯氏之子, 過房與曹家, 因此是同族. 不數日, 曹氏兄弟曹仁, 曹洪各引兵千餘來助. 曹仁字子孝, 曹洪字子廉. 二人兵馬熟嫺, 武藝精通. 操大喜, 於村中調練軍馬. 衛弘盡出家財, 置辦衣甲旗旛. 四方送糧食者, 不記其數.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종강본과 〈권2〉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약이 심하다. 그러나 원본에 있는 장황한 내용을 생략하면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조조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동탁을 응징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장면과 같이 다소 장황한 내용 또한 잘 전달되도록 간략하게 사건 위주로 번역해 놓았다.

〈권2〉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원본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번역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장회명을 '왕ᄉᆞ도연환개을 쑴이다', '원쇠 공숀찬과 반하의 ᄊᆞ우다'로 필사자가 자의적으로 장회명을 적은 것이나, 원본에 있는 장회를 모두 해체시켜 내용을 이어서 필사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Ⅳ. 마무리와 남는 문제

마무리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에 소장된 한글 번역본 『삼국지연의』를 대상으로 번역본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부산시민도서관본은 전체 30권 30책으로 되어 있다. 이 본은 1903년 전후에 필사되어 읽히다가 〈권2〉가 결본이 되자, 1909년에 〈권2〉만 다시 필사한 것이다. 이 본을 필사한 사람과 필사의 목적은 필사기(筆寫記)의 "일선니 공부칙니요"를 통해서, 소설 『삼국지연의』를 통하여 중국의 역사를 알고, 한글을 배우기 위하여 소설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권2〉를 제외한 29책은 모종강본(毛宗崗本) 『삼국지연의』를 충실히 번역한 것으로, 매 권 당 4회의 내용을 필사해 놓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20〉과 〈권23〉은 5회와 3회 분량을 필사했다. 개장시(開場詩), 주(註), 평어(評語), '차청하회(且聽下回)'와 같은 상투어는 대부분 생략을 하였다. 그러나 내용은 모종강본을 충실하게 축약(縮約)하여 번역했다.

29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종강본에 있는 삽입시를 대부분 번역했다는 것이다. 삽입시는 한글로 해석만을 해두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두 개 이상의 시가 등장할 경우에는 대개 처음의 시만 번역을 했다.

시는 유비를 비판하거나 그런 분위기의 것, 조조를 찬양하는 것, 필사자가 판단해서 악역(惡役)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의 시를 모두 생략했다. 반면에 관우, 제갈량, 조자룡, 장비가 등장하는 곳이나 충신(忠臣)들이 등장하는 부분의 시는 모두 번역해 두었다.

반면 〈권2〉는 원본의 구애를 받지 않고『삼국지연의』의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장회명의 경우 필사자가 임의적으로 장회명을 적었으며, 내용 또한 장회의 구분 없이 필사했다. 그리고 29책과 같이 중간에 등장하는 삽입시는 모두 생략했다. 이 본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읽혔던 본이며, 활판본『삼국지연의』나 신소설이 등장하기 전인 20세기 초의 번역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삼국지』번역본을 차례로 검토하는데 있다. 각주에서도 밝혔지만 현재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삼국지』번역본은 대략 100여 종이 있다. 이 중에서도 고려대본 33책, 서강대본 24책, 세책본 69책『삼국지』, 경판본『도원결의록』, 완판본『언삼국지』, 활판본으로 간행된『삼국지』등은 연구자들이 바삐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번역본들이 검토되었을 때, 국내에 존재하는『삼국지』번역본의 계통과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에서의 장편 연의소설이 조선에서 어떻게 읽히고 변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시민도서관본의 특징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 [부록] : 부산 시민도서관본의 서지사항

권	표제	장수	표지의 한문 장회 여부	한글 장회
1	삼국지 졔일	45장	있음	연도원에 호걸삼결의 츰황건에 영웅수입공. 쟝비노편독우ᄒᆞ고 ᄒᆞ국구모듀환슈ᄒᆞ다. 의온명동탁이 질졍원ᄒᆞ고 괴금쥬니슉이 셰여포라. 폐한졔의진류위왕ᄒᆞ고 모동젹에 밍덕이 헌도ᄒᆞ다
2	삼국지 졔이 (諺三國誌 第二)	31장	없음	왕ᄉᆞ도 연환개을 쑴이다 원쇠 공숀찬과 반하의 ᄊᆞ우다
3	삼국지 졔삼	46장	있음	졔흉포의 여포 됴ᄉᆞ도ᄒᆞ고 범쟝안에 니확쳥가허라. 근왕실에 마등이 흥긔의 ᄒᆞ고 보부슈에 조죄 흥ᄉᆞ라. 뉴황슉이 북히의 구공융ᄒᆞ고 여온후 복양에 파 조죠라. 도공죠 삼양셔쥬ᄒᆞ고 조밍덕이 ᄃᆡ젼여포라.
4	삼국지 졔ᄉᆞ	58장	있음	니확 곽ᄉᆡ ᄃᆡ교병ᄒᆞ고 양봉 동승이 상구가라. 조밍덕이 〃가 힝허도ᄒᆞ고 여봉션이 야십셔쥬ᄒᆞ다 ᄐᆡᄉᆞᄌᆞ감투소픽왕ᄒᆞ고 손빅부ᄃᆡ젼엄빅호ᄒᆞ다 여봉션이 ᄉᆞ극원문ᄒᆞ고 조밍덕이 픽ᄉᆞ년수ᄒᆞ다
5	삼국지 졔오	42장	있음	원공노ᄃᆡ긔칠군ᄒᆞ고 조밍덕이 회홉삼장이라 가문화요젹결승ᄒᆞ고 ᄒᆞ후돈이시검담졍이라 ᄒᆞ비셩의 조죠 오병ᄒᆞ고 빅문누의 여포운명ᄒᆞ다 조아만이 허젼타위ᄒᆞ고 동국구ᄂᆡ각슈죠ᄒᆞ다
6	삼국지 졔육	38장	있음	조죠쟈쥬논영웅ᄒᆞ고 관공셤 참차쥬라 원소각긔마보ᄉᆞᆷ군ᄒᆞ고 관쟝이공금왕뉴이쟝ᄒᆞ다 미졍평이과의ᄆᆡ젹ᄒᆞ고 귈ᄐᆡ의ᄒᆞ독죠형ᄒᆞ다 국젹이 힝흉에 쌀귀비ᄒᆞ고 황슉이 픽쥬투원쇼ᄒᆞ다
7	삼국지 졔칠	44장	있음	둔토산에 관공이 약ᄉᆞᆷᄉᆞᄒᆞ고 구빅마의 조죠 ᄒᆡ쥼위라 원본쵸 픽병졀쟝ᄒᆞ고 관운장이 괘인봉금ᄒᆞ다 미럼공이 천리쥬단긔ᄒᆞ고 한슈졍후 오관ᄎᆞᆷ육쟝이라 참쵀양에 형졔가 셕의ᄒᆞ고 회고셩에 쥬신이 취의라.
8	삼국지 졔팔	45장	있음	쇼픽왕이 노ᄎᆞᆷ우길ᄒᆞ고 벽안ᄋᆡ 좌령 강동ᄒᆞ다 젼관도에 본쵸 픽젹ᄒᆞ고 겁오쇼의 밍덕이 쇼량ᄒᆞ다 조죠 ᄎᆞᆼ졍에 파본쵸ᄒᆞ고 현덕이 형쥬에 의뉴푀ᄒᆞ다 탈긔쥬에 원상이 징봉ᄒᆞ고 결쟝ᄒᆞ에 허유자게라
9	삼국지 졔구	39장	있음	조비승난납견씨ᄒᆞ고 곽가유게졍요동이라 쵀부인격병쳥미어ᄒᆞ고 뉴황슉이약마과단게ᄒᆞ다 현덕이 남쟝에 봉은윤ᄒᆞ고 단복에 신야에 우영쥬ᄒᆞ다 현덕이 용게심번성ᄒᆞ고 원직이 쥬마쳔 졔갈ᄒᆞ다
10	삼국지 졔십	45장	있음	ᄉᆞ마휘 ᄌᆡ천명ᄉᆞᄒᆞ고 뉴현덕이 ᄉᆞᆷ고쵸려ᄒᆞ다 졍삼분에 융쥼에 결칙ᄒᆞ고 젼쟝강에 숀씨가 보구ᄒᆞ다 형쥬셩에 공ᄌᆞ ᄉᆞᆷ구게ᄒᆞ고 박망파에 군슈 쵸용병이라 채부인이 의헌형쥬ᄒᆞ고 졔갈양이 화쇼신야ᄒᆞ다

권	표제	장수	표지의 한문 장회 여부	한글 장회
11	삼국지 졔십일	45장	있음	뉴현덕이 슈민도강ᄒᆞ고 됴ᄌᆞ룡이 단긔구쥬ᄒᆞ다 장익덕이 ᄃᆡ픽장판교ᄒᆞ고 뉴예쥬픽쥬한진구ᄒᆞ다 졔갈량이 혈젼군유ᄒᆞ고 노쟈경이 녁빅 즁의ᄒᆞ다 공명이 용지격쥬유ᄒᆞ고 숀권이 결게파조죠ᄒᆞ다
12	삼국지 졔십이	41장	있음	숨강구에 조죠 졀병ᄒᆞ고 군영회에 쟝간이 즁계ᄒᆞ다 용긔모ᄒᆞ야 공명이 ᄎᆞ젼ᄒᆞ고 헌밀게ᄒᆞ야 황기 슈형ᄒᆞ다 감틱이 밀헌ᄉᆞ 항셔ᄒᆞ고 방통이 교슈년환게ᄒᆞ다 년쟝강에 조죠 부시ᄒᆞ고 쇄젼션에 북군이 용무ᄒᆞ다
13	삼국지 졔십삼	42장	있음	칠성단에 졔갈양 졔풍ᄒᆞ고 삼강구에 쥬유 죵화ᄒᆞ다 졔갈량이 지산 화룡ᄒᆞ고 관운쟝이 의셕 조죠ᄒᆞ다 조인이 ᄃᆡ젼 동오병ᄒᆞ고 공명이 일긔 쥬공근ᄒᆞ다 졔갈량이 지ᄉᆞ노슉ᄒᆞ고 됴ᄌᆞ룡이 게춰가양ᄒᆞ다
14	삼국지 졔십사	44장	있음	관운쟝의셕황한승ᄒᆞ고 숀즁모ᄃᆡ젼장문원ᄒᆞ다 오국틔불사에 간신랑ᄒᆞ고 뉴황슉이 동방에 속가우라 현덕이 지격숀부인ᄒᆞ고 공명이 니긔쥬공근ᄒᆞ다 조조ᄃᆡ년동작ᄃᆡᄒᆞ고 공명이 ᄉᆞ긔 쥬공근ᄒᆞ다
15	삼국지 졔십오		있음	시상구에 와룡됴상ᄒᆞ고 뇌양현에 봉츄이ᄉᆞᄒᆞ다 마밍긔 흥병 살한ᄒᆞ고 조아만이 활슈기포ᄒᆞ다 허졔과의투마초ᄒᆞ고 조죠 말셔간ᄒᆞᆫ슈ᄒᆞ다 장영년이 반니 양슈ᄒᆞ고 방사원이 의춰 셔촉ᄒᆞ다
16	삼국지 졔십육	49장	없음	됴운이 졀강탈아두ᄒᆞ고 손권이 유셔 퇴노만ᄒᆞ다 춰빅관의 양고가수슈ᄒᆞ고 공낙성에 황위가 징공ᄒᆞ다 졔갈량이 통곡 방사원ᄒᆞ고 장익덕이 의셕 엄안ᄒᆞ다 공명이 뎡계착쟝임ᄒᆞ고 양부가 차병파마초ᄒᆞ다
17	삼국지 졔십칠	51장	있음	마쵸ᄃᆡ젼가밍관ᄒᆞ고 뉴비쟈령익쥬목ᄒᆞ다 관운쟝이 단도부회ᄒᆞ고 복황후 위국년싱ᄒᆞ다 조죄 평뎡한즁지ᄒᆞ고 쟝뇨위진초요진ᄒᆞ다 감영빅긔로겁위영ᄒᆞ고 좌쟈책빅희조죠ᄒᆞ다
18	삼국지 졔십팔	47장	없음	복쥬역에 관뇌지긔ᄒᆞ고 토한적에 오신 ᄉᆞ졀ᄒᆞ다 밍쟝비지춰와구익ᄒᆞ고 노황츙이 게탈천탕산ᄒᆞ다 점ᄃᆡ산에 황츙이 일ᄃᆡ로ᄒᆞ고 거한슈에 됴운이 과승즁ᄒᆞ다 졔갈양이 지춰한즁ᄒᆞ고 조아만이 퇴병야곡ᄒᆞ다
19	삼국지 졔십구	44장	있음	현덕이 지위 한즁왕ᄒᆞ고 운쟝이 공발 양양군ᄒᆞ다 방영명이 ᄐᆡ친 결ᄉᆞ젼ᄒᆞ고 관운쟝이 방슈 ᄒᆞᆸ칠군ᄒᆞ다 관공이 괄골요독ᄒᆞ고 여ᄌᆞ명이 빅의도강ᄒᆞ다 셔공명이 ᄃᆡ젼 면슈ᄒᆞ고 관운쟝이 픽쥬 믹셩ᄒᆞ다
20	삼국지 졔니십	38장	없음	옥천산의 관공 현셩ᄒᆞ고 낙양성의 조죠 감신ᄒᆞ다 치풍질에 신의 신ᄉᆞᄒᆞ고 젼유명에 간웅 슈죵ᄒᆞ다 형핍졔에 조식 부시ᄒᆞ고 질ᄒᆞᆷ슉에 뉴봉 복죄ᄒᆞ다 조비 페졔ᄒᆞ야 ᄎᆞ염뉴ᄒᆞ고 한왕이 졍위ᄒᆞ야 속ᄃᆡ통ᄒᆞ다 급형슈에 장비우히ᄒᆞ고 셜졔ᄒᆞᆫ에 션쥬흥병ᄒᆞ다

권	표제	장수	표지의 한문 장회 여부	한글 장회
21	삼국지 졔이십일	41장	없음	숀권이 항위슈구셕ᄒᆞ고 션쥬졍오장육군ᄒᆞ다 젼회졍에 션쥬득슈인ᄒᆞ고 슈강구에 셔싱이 빅ᄃᆡ쟝ᄒᆞ다 촉쥬 유모능셜복ᄒᆞ고 오병이 효용졍죠금ᄒᆞ다 뉴션쥬유죠탁고아ᄒᆞ고 졔갈양이 안거평오로ᄒᆞ다.
22	삼국지 이십이	45장	없음	난쟝온진복이졍천변ᄒᆞ고 파죠비에 셔셩이 용화공ᄒᆞ다 졍남구에 승상이 ᄃᆡ흥ᄉᆞᄒᆞ고 항천병에 만왕이 초슈집ᄒᆞ다 도노슈에 ᄌᆡ박 번왕ᄒᆞ고 식ᄉᆞ항에 ᄉᆞ금 밍확ᄒᆞ다 무향후 ᄉᆞ번 용게ᄒᆞ고 남만왕이 오ᄎᆞ죠금ᄒᆞ다
23	삼국지 졔니십삼	39장	있음	구거슈에 육파만병ᄒᆞ고 쇼등갑에 칠금 밍확ᄒᆞ다 졔노슈에 한쟝이 반ᄉᆞᄒᆞ고 벌 원에 무후상푀ᄒᆞ다 됴ᄌᆞ룡녁ᄎᆞᆷ오쟝ᄒᆞ고 졔갈양이 지쿼ᄉᆞᆷ셩ᄒᆞ다
24	삼국지 졔이십사	45장	없음	강빅약이 귀항공명ᄒᆞ고 무향후 ᄆᆡᄉᆞ왕낭ᄒᆞ다 졔갈양승셜파강병ᄒᆞ고 ᄉᆞ마의극일금밍달ᄒᆞ다 마속이 거간실가졍ᄒᆞ고 무후탄금퇴즁달ᄒᆞ다 공명이 눈무를 ᄲᅮ려 ᄎᆞᆷ마속ᄒᆞ고 쥬방이 단발셤조휴ᄒᆞ다
25	삼국지 졔이십오	44장	있음	토위국의 무후ᄌᆡ상푀ᄒᆞ고 파조병의강유사헌셔ᄒᆞ다 츄한군에 왕상이 슈쥬ᄒᆞ고 십진ᄎᆞᆼ에 무후취승ᄒᆞ다 졔갈양ᄃᆡ파위병ᄒᆞ고 ᄉᆞ마의 입구셔촉ᄒᆞ다 한왕이 겁치파조진ᄒᆞ고 무후두진욕즁달ᄒᆞ다
26	삼국지 졔니십육	59장	있음	츌농상에 졔갈이 장신ᄒᆞ고 분검각에 장홉이 즁게ᄒᆞ다 사마의 졈북원위교ᄒᆞ고 졔갈양이 토목우유마ᄒᆞ다 상방곡의 ᄉᆞ마의 슈곤ᄒᆞ고 오장원의 졔갈이 양셩ᄒᆞ다 운ᄃᆡ셩의 한승상이 귀천ᄒᆞ고 견본상의 위도독이 상담ᄒᆞ다
27	삼국지 졔이십칠	53장	없음	무후예복금낭게ᄒᆞ고 위쥬졀취승논반ᄒᆞ다 공숀년이 병픽ᄉᆞ양평ᄒᆞ고 ᄉᆞ마의ᄉᆞ병셤조상ᄒᆞ다 위쥬귀경ᄉᆞ마씨ᄒᆞ고 강유병픽우투산ᄒᆞ다 졍봉이 셜즁의 분단병ᄒᆞ고 숀쥰이 셕간에 시밀게ᄒᆞ다
28	삼국지 졔니십팔	42장	없음	곤ᄉᆞ마의 한 장이 긔모ᄒᆞ고 폐조방의위가과보ᄒᆞ다 문잉이 단긔로 퇴웅병ᄒᆞ고 강유가 빅슈파ᄃᆡ적ᄒᆞ다 등ᄉᆞᄌᆡ지픽강빅약ᄒᆞ고 졔갈텸이의토ᄉᆞ마쇼ᄒᆞ다 구슈츈의우젼이 ᄉᆞ졀ᄒᆞ고 취쟝셩에 빅약오병ᄒᆞ다
29	삼국지 졔이십구	41장	없음	졍봉졍계ᄎᆞᆷ손팀ᄒᆞ고 강유투지파등ᄋᆡᄒᆞ다 조모구거ᄉᆞ남궐ᄒᆞ고 강유긔양승위병ᄒᆞ다 됴반ᄉᆞ에 후쥬 ᄊᆞ홈ᄒᆞ고 탁둔젼에 강유 페화ᄒᆞ다 죵회분병한즁도ᄒᆞ고 무후현셩졍군산ᄒᆞ다
30	삼국지 졔삼십	40장	없음	등ᄉᆞᄌᆡ유도음평ᄒᆞ고 졔갈쳠이 젼ᄉᆞ면쥭ᄒᆞ다 곡죠뫼예 일왕이 ᄉᆞ효ᄒᆞ고 입셔천의 양ᄉᆞ징공ᄒᆞ다 가투항에 교게가 셩허화ᄒᆞ고 ᄌᆡ슈션에 의양화호로ᄒᆞ다 두예의 노쟝이 헌신모ᄒᆞ고 항손ᄒᆞ의 ᄉᆞᆷ분이귀일통ᄒᆞ다

〈참고문헌〉

1. 자료

『삼국지』, 한글필사본, 30권 30책,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소장.
『삼국지』, 한글필사본, 17권 17책, 국립중앙도서관소장(『學古房』, 2009 간행)
『삼국지』, 한글필사본, 19권 17책, 중한번역문헌연구소소장(『學古房』, 2007 간행)
羅貫中 原著 · 吳小林 校註, 『三國演義校註』, 里仁書局, 1994.
정원기 역, 『삼국지 시가 감상』, 현암사, 2006.
정원기 역, 『정역삼국지』, 현암사, 2008.

2. 단행본 및 논문

강태권, 「談論 三國演義 중의 曹操」, 『인문과학』 7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김기형, 『적벽가의 역사적 전개와 작품 세계』,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3.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절, 2002.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1996.
무악고소설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태학사, 2001.
무악고소설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Ⅱ』, 이회, 2005.
민경욱, 「異體字와 引書異文으로 본 三國志演義 초기 텍스트 : 嘉靖壬午本과 葉逢春本의 對校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아세아문화사, 2008
박재연, 『삼국지통속연의』, 이회문화사, 2001.
박재연, 「조선 각본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27집, 중국어문학회, 2008.
박재연, 「새로 발굴된 朝鮮 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4집, 중국어문연구회, 2010.
변주승 역, 『대한계년사』, 소명, 2004.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편, 『고서목록』,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995.
上田望, 「三國演義版本試論」, 『三國演義叢考』, 北京大學出版社, 1995.
_____, 「毛綸 · 毛宗崗批評 『四大奇書三國志演義』 版本目錄(稿)」, 『中國古典小說硏究』, 第四號, 1998.
_____, 「「三國志演義」 毛評本的傳播」, 『文學遺産』, 2000年 第四期, 中國社會科學院文學硏究所, 200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주관, 『2010년 국제 학술회의 近代的 동아시아 小說의 交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0, 8월.

서울시사편찬위원회편, 『서울육백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0.
송경호, 『만한합벽삼국지』, 박문사, 2010.
오수미, 『삼국지연의의 연변 및 비교문학적 연구』, 서울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1974.
오춘택, 『한국 고소설 비평사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1
劉世德, 「「三國志演義」 周曰校刊本四種試論」, 『文學遺産』, 2002年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02.
_____, 「三國志演義 朝鮮翻刻本試論: 周曰校刊本研究之二」, 『文學遺産』, 2010年 第1期,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10.
이기형, 『필사본 화용도 연구』, 민속원, 2003.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이은봉, 『「삼국지연의」의 수용 양상 연구』, 인천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7.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8.
魏 安, 『三國演義版本考』, 上海古籍出版社, 1996.
조연준, 『「삼국지」와 「삼국연의」를 통해 본 옹유폄조』, 단국대 중문과 석사학위 논문, 2009.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상』, 박이정, 2006.
전인초, 「관우」, 『인문과학』 7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정병설, 「18 · 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 :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5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정원기, 『최근 삼국지연의의 연구 동향』, 중문, 2000.
정민경 외, 『청 모종강본 삼국지』, 학고방, 2007.
中川諭, 『三國志演義版本的研究』, 汲古書院, 1998.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2010.
黃霖等, 『中國小說研究史』, 浙江古籍出版社, 2002.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부산의 도서관사』, 육일문화사, 2003.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20일에 투고되어,
2011년 1월 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1년 1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1월 2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中文提要▐

釜山廣域市立市民图书馆所藏的韩文翻译本『三国志演义』的性格和特点

兪 春 東*

本文考述了釜山廣域市立市民图书馆所藏的韩文翻译本『三国志演义』的性格和特点。

这本书共30卷30册。从外形上看这本象是套装本，但其实是2种翻译本的合装本。原来的30册中的卷二缺失，这部分从新抄写补了进去。除了卷二，其余29册翻译的是毛宗岗本『三国志演义』，基本每卷4回。但卷20和卷23分别抄录了5回和3回分量的内容。章回题目也和毛宗岗本几乎一致。只是卷二，不受原本的拘束，笔抄者根据内容任意题名，内容也没有章回之分。

除了卷二的其余29册，把开场诗、注、评语、'且听下回'等套语和每回最后登场的诗，大部分都省略了。但内容却忠实地根据毛宗岗本缩约翻译。有些内容改称比较容易的描写，书信、表、上疏文等也缩约翻译，但基本上没有毁损原本内容。

这本书的最大特点是把毛宗岗本的插入诗大部分都翻译了。插入诗没有表写汉字或韩文音符，而是翻译解释了其内容。一个场面里出现二首以上的诗，只翻译了第一首。删掉的插入诗，主要是批判刘备的、赞扬曹操的、笔抄者判断是恶人出场的部分，都删掉了。相反，关羽、诸葛亮、赵子龙、张飞等登场的部分，或忠臣出场部分的诗，全都翻译了。卷二没有考虑毛宗岗本。卷二同样把开场诗、注、评语、'且听下回'等套语和每回最后登场的诗大部分都省略了。但中间出现的插入诗都没有解释，内容的省略也很多。

这本书是1903年前后笔抄，阅读，中间卷二缺失之后，仍旧流传。到1909年把卷二部分从新抄写补充。从这一点，可以推看10年间隔，翻译本有何变化的面貌。

这本书的笔抄者和笔抄目的现在还不明确。但从笔抄记中的 "일선니 공부칙니요"来看，是想通过小说『三国志演义』，了解中国历史，又一个字一个字的写韩文来学习韩文。

这本书在釜山-庆南一带阅读的本，它是在活版本『三国志演义』或新小说出现之前，在20世纪初就出现的翻译本，这一点比其他任何异本具有更大的意义。

[關鍵詞] 釜山廣域市立 市民圖書館本，飜譯本『三國志演義』，毛宗崗本，飜譯樣相，縮約飜譯本.

* 延世大學校 講師